

축구 콤팩트 뉴스

선수에 폭언·폭행설...최인철 감독 조사

대한축구협회가 여자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최인철 감독(47)의 선수 폭언 및 폭행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김판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은 5일 열린 한국대표팀의 조지아와 평가전이 끝난 직후 투르크메니스탄과 2022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원정에 동행하지 않고 귀국해 최 감독을 직접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윤덕여 전 감독의 후임으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최 감독은 2012년 런던올림픽 예선을 이끌던 2011년 대표 선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벤투호 8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 입성

터키에 머물고 있는 축구국가대표팀이 2022월드컵카타르 아시아 2차 예선 H조 1차전이 열리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8일 오후(현지시간) 이동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훈련장 환경이 썩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한 파울루 벤투 감독은 터키에서 최대한 체류한 뒤 투르크메니스탄에 입성하기로 했다. 대표팀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경기 전날(9일) 공식 훈련 한 차례만 실시한 뒤 10일로 예정된 투르크메니스탄전을 소화한다. 대표팀은 소집 직후 터키에서 조지아와 평가전(5일)을 갖는 등 훈련을 진행해왔다. 투르크메니스탄전은 한국시간으로 10일 오후 11시 아슈하바트 코페타다르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북한, 월드컵 2차 예선 레바논에 2-0

북한이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H조 1차전에서 레바논을 2-0으로 꺾었다. 최근 유벤투스(이탈리아)로 이적해 관심을 모은 한광성이 선발로 나와 공격의 중심을 잡았고, 정일관이 2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북한 축구의 에이스로 불리는 정일관은 전반 7분 선제골과 후반 11분 쐐기골을 연달아 터뜨렸다. 2차 예선 1차전에서 귀중한 승점 3을 챙긴 북한은 10일 스리랑카와 2차전을 벌인다. 같은 H조인 한국과 북한은 다음달 15일 평양에서 2차 예선 맞대결을 벌인다.

손흥민·황희찬·이강인 챔스 32강 출격

손흥민(27·토트넘), 황희찬(23·잘츠부르크), 이강인(18·발렌시아)이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32강 조별리그에 출격한다. UEFA는 5일(한국시간)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에 출전할 32팀 선수 명단을 공개했다. 황희찬과 이강인은 생애 처음으로 꿈의 무대에 선다. 토트넘은 B조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 올림피아코스(그리스),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와 경쟁한다. 잘츠부르크는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잉글랜드), 나폴리(이탈리아), 헝가리(헝가리)와 B조에 속했다. 발렌시아는 H조에서 첼시(잉글랜드), 아약스(네덜란드), 릴(프랑스)과 조별리그를 치른다.



벤투호, 이동거리·시차·환경과의 전쟁 시작

동남아 5~6시간·중동 10시간 이동
중동·중앙아시아 시차도 최대 6시간
대륙마다 서로 다른 날씨·기후 암초
벤투 감독, 철저한 컨디션 관리 주문

“아시아 예선은 변수가 훨씬 더 많다.” 축구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지난달 26일 대표팀 명단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2022카타르월드컵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될 9월 A매치 시리즈를 앞두고 ‘가장 고민한 부분이 무엇인가’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5일(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조지아와 평가전을 마친 대표팀은 10일 아슈하바트로 장소를 옮겨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원정 1차전을 갖는다. 벤투 감독이 밝힌 ‘변수’는 이동시간과 시차, 환경이다.

3~4시간 이내에 어디든 당도하는 유럽과 아시아는 차원이 다르다. 일본이나 중국 등 같은 동아시아 권역이 아니라면 상당히 긴 비행시간이 불가피하다.

동남아시아도 5~6시간이 소요된다. 유럽과 맞닿은 중동은 10시간 이상 필요하다. 물론 직항노선이 열린 경우에 한해서다.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속한 오세아니아 후조도 비행시간 10시간 이상이고, 국내선 경유를 하면 15시간을 훌쩍 넘어간다. 장거리 이동만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다. 시차도 있다. 중국은 1시간, 동남아는 2시간으로 별 차이가 없으나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4시간 30분~6시간의 차이를 보인다. 오히려 유럽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환경도 무시할 수 없다. 지구 남반구의 후주는 우리와 정반대의 기후를 보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녀야 하는 월드컵 2차 예선은 컨디션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동시간은 물론 시차와 환경 적응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울루 벤투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지혜를 더욱 필요로 하는 이유다. 스포츠동아DB

귀화 선수로 월드컵 본선 도전...미래와 등 돌린 중국 축구

브라질 출신 골키퍼 엘케손 대표 발탁
리피 감독도 귀화 통한 전력 보강 요청
유소년 등 장기적 육성 시스템은 뒷짐

최근 아시아축구의 이슈 중 하나는 중국의 귀화정책이다. 중국대표팀은 9월부터 시작하는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앞두고 브라질 태생의 귀화 선수 엘케손(30·광저우 헝다)을 선발했다. 중국축구의 약점인 공격력, 특히 득점력을 보강하기 위한 발탁이었다. 2013년 중국에 진출한 엘케손은 광저우 헝다와 상하이 상강을 오가며 슈퍼리그 통산 148경기에서 100골을 기록하는 무시무시한 골 감각을 과시했다. 2011년 브라질대표팀에 뽑혔을 정도로 기량은 이미 검증됐고, 당시 경기를 뛰지 않은 덕분에 중국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었다. 엘케손의 귀화는 중국축구의 절박한 현



귀화선수 엘케손

실을 반영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딱 한번 월드컵 본선(2002년)에 나갔을 정도로 축구 변방이다. 인구가 많고, 축구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축구의 경쟁력만큼은 늘 바닥권이었다. 축구굴기(축구로 우뚝 선다)를 주장했지만 구호만 요란했다. 축구광으로 알려진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30년 안에 월드컵 본선 진출과 개최, 그리고 우승”을 주문할 정도로 적극적이지만, 대표팀 실력이 나아진 징후는 그 어디에도 없다. 거액을 들여 세계적인 명장 마르첼로 리피(이탈리아) 감독을 영입했지만, 2018년 러시아월드컵 본선 출전권도 따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꺼낸 카드가 귀화정책이다. 엘케손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강예선가

지 추가로 몇 명 더 귀화시킨다는 복안이다. 만만치 않은 금전적 보상이 따를 것이다. 선수 입장에서든 브라질대표팀이 힘들다면 중국을 통해서라도 월드컵 무대를 밟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중국 여론도 우호적이다. 월드컵 본선에만 나갈 수 있다면 물불 가리지 말아야한다는 분위기다.

중국은 카타르의 2019 아시안컵 우승에 자극 받았을 법하다.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는 재능 있는 아프리카 선수들을 일찌감치 귀화시켜 아시아 무대 정상에 올랐다. 단박에 전력을 끌어올릴 묘책이 필요한 중국이 솔깃할만한 성과였다. 리피 감독의 영향도 컸다. 1월 아시안컵 이후 그만뒀다가 다시 지휘봉을 잡은 그는 귀화 선수를 통한 전력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체면을 구긴 리피 감독도 성적이 절실하다.

답답한 마음에 귀화 선수로 눈을 돌린 중

이고, 동남아는 고온다습한 날씨, 서아시아는 건조하며 뜨거운 날씨다. 같은 날 장소만 달리하면 겨울부터 여름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대륙이 아시아다.

따라서 선수단의 생체리듬 관리가 중요하다. 월드컵 예선은 ‘전시 체제’다. 내용보다 결과가 우선시되며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대표팀은 6시간 시차의 터키에서 몸을 먼저 텅텅 뒤 4시간 시차의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향하는 동선을 짰고, 인원을 정예 엔트리(23명) 대신 26명으로 넉넉히 뽑았다.

솔직히 2차 예선 스케줄은 나은 편이다. 연내 대부분 원정이 잡힌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중앙아시아(투르크메니스탄), 중동(레바논) 원정이 각각 이달과 11월 진행되고, 같은 달 연달아 경기를 소화할 예선 2연전(10월, 내년 3·6월)은 홈~원정과 홈 2연전으로 잡혔다.

하지만 내년 후반이 시작할 최종예선에서 스케줄이 꼬이면 중동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다음 경기를 갖는 불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특히 K리그와 일본 J리그, 중국 슈퍼리그에 몸담은 이들의 피로누적이 걱정스럽다. 이른바, ‘역 시차’다.

2시간 시차에 적응하려면 타이프하게 잡아도 하루가 필요하다는 것이 스포츠 의학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바뀐 환경까지 더하면 더욱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보름 이상의 준비기간이 주어질 국제대회 본선과 달리 예선은 여유가 없다. 원정길에 오르면 벤투 감독이 남긴 “지금껏 준비해온 상황과는 다른 단계에 돌입했다”는 발언에는 태극전사들 모두가 몸과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부 기자 yoshike3@donga.com

국이지만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설령 이런 편법이 성공한다하더라도 그제 장기적인 축구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다.

중국의 경우 유소년축구 정책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축구단 산하 연령별 유소년 팀 운영이 미진해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K리그나 일본의 J리그에 많이 밀리는 게 사실이다. 우리만 하더라도 이번 대표팀 26명 가운데 K리그 산하 유스팀 출신이 12명이나 될 만큼 육성 시스템은 자리를 잡고 있다. 중국에서 지도자 경험에 있는 한 축구인은 “중국의 축구발전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유소년 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밑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이 없다는 건 미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 나라의 축구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해나가야 축구 강국이 될 수 있다. 귀화와 육성, 같은 두 글자이지만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다.

최현길 기자 choi hg2@donga.com

휴식기에 귀저우 전훈, 선화를 개조하는 최강희

지지않는 팀으로 분위기는 바꿨지만
체력·조직력·전술까지 업그레이드
최 감독이 오매불망 기다려온 시간

지난 시즌을 끝으로 K리그1 전복 현대를 떠나 중국으로 향한 최강희 감독은 6개월여 만에 세 번째 지휘봉을 잡았다. 헨진 취안젠(현 헨하이), 다렌 이팡에 이어 슈퍼리그 최고 명문인 상하이 선화에 7월 안착했다.



최강희 감독

저력을 발휘했다.

정규리그 3승2무1패, 데뷔전이던 7월

12일 허베이 화샤 원정(17라운드·1-2 패) 이후 패배를 얻은 팀이 됐다. FA컵에서도 2연승을 달려 결승에 올랐다.

그러나 최 감독은 만족스럽지 않다. 쌓이고 쌓인 패배의식은 최근의 성적으로 조금이나마 털어냈지만 체질개선은 불가피했다. 그 시점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어진 긴 휴식기로 정했다. 중국은 대표팀의 전력강화를 위해 지난달 말 조기소집을 했고, 상하이 선화는 지난달 19일 다렌 이팡과의 FA컵 4강 원정경기부터 휴식에 돌입했다.

부임 초기 현지에서 만났던 최 감독은 “휴식기를 이용해 전지훈련을 간다. 동계훈련만

큼은 아니지만 새 팀을 만들려 한다. 체력도 키우고 조직력을 단단히 다진다. 전술패턴도 훨씬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장소는 일찌감치 한적한 휴양지 귀저우로 정했다. 높은 습도에 섭씨 33도에 달하는 상하이에 비해 19~28도 안팎의 귀저우는 훈련에 안성맞춤이다. 시즌 도중 소방수로 긴급 투입된 최 감독이 오매불망 기다려온 시간이다. 중국 언론들은 “성적이 좋아지고 강등 위험이 사라지며 선수들이 안정을 찾았다. 시즌 중반부가 가까워지면서 상하이 선화는 더욱 무서워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예상을 내놓고 있다. 남정현 기자